

“벼랑끝 내 몬 시...이젠 시가 있어 내가 존재”

다섯번째 시집 '셋!' 펴낸 광주 출신 오봉옥 시인

1990년 5월 25일자 일간지에 20대 젊은 시인이 정역 3년을 구형받았다는 뉴스가 게재됐다. 앞길에 구만리 같던 이십대의 시인은 '이적출판물' 제작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다.

광주 출신 오봉옥 시인. 올해 56세인 그의 삶에는 80년 광주 5월, 그리고 '이적출판물 제작'이라는 아픈 시간이 드리워져 있다. 이번엔 그가 8년 만에 다섯 번째 시집 '셋!' (천년의 시작)을 펴냈다.

“지금도 80년 5월 당시 살아남았다는 부끄러움과 죄의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겪었던 필화사건 트라우마로 한동안 고통을 겪기도 했지요.”

기자는 새 작품집 발간 소식을 매개로 오랜만에 오봉옥 시인과 통화를 했다. 서울디지털대 문예창작과 교수이기도 한 그는 학기 중에는 서울에 있지만, 방학 때는 가끔씩 고향 광주에 들른다. “올해는 너무 더워 움직이기가 겁났다”고 말하는 그의 어투에는 특유의 남도 방언 어조가 깃들여 있었다.

“80년 5월 27일 광주 항쟁 마지막 날인 27일 친구들 네 명과 카톨릭센터에 있었습니다. 공수부대가 탱크를 앞세우고 광주로 들어온다는 안내 방송이 지금도 생생해요. 당시 고등학교 친구들과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인근 민가로 들어갔어요. 솔직히 두려웠죠.” 이후 그는 오랫동안 부끄러움과 죄의식

1990년 '붉은산 검은 피'로 필화 이후 트라우마 고통 겪어 80년 5월 부채감 시달리기도 "미시적이며 서정적 작품 쓸 것"

에 시달렸다. 많은 이들이 죽음으로 맞섰지만 자신은 현장에서 도망친 나약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 시인은 “이후로 두 가지를 못했다”며 “하나는 5월에 관한 시를 쓰지 못한 것과 역사적 현장을 르브로 담아내는 책을 펴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열여덟 고등학생이 감당하기에는 두렵고도 가혹한 시간이었다. 이후 그는 전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고 문학에 매진한다. 꾸준히 시 창작을 한 결과 1985년 '창작과 비평'으로 등단한다.

그러나 그에게는 또 한번의 고통의 시간이 다가간다. 앞서 언급했던 바로 필화사건. “해방 전후 벌어졌던 좌익의 무장활동을 형상화한 서사시 '붉은산 검은 피' (1989)를 출간했어요. 그리고 나서 9개월



만에 구속을 당한 거죠.”

오 시인은 당시 광주 풍향동 집 앞에서 사복경찰에 붙잡혔다. 도망 중에 어머니가 아프다는 동생의 전화를 받고 집에 갔다가 체포됐다. “그때는 동생과의 통화가 도청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당시 필화를 계기로 트라우마가 생겼다. 특정한 두려움이라기보다 '뒤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오해받기 싫었다'는 것이다.

30여 년의 시간이 흘러 그는 이제 선여섯 중년이 됐다. 시를 쓰는 것이 고통이자 족쇄의 시대를 지나 조금은 내면의 안정을

찾았다(물론 여전히 80년 5월의 부채감은 있지만). 시는 자신을 벼랑끝으로 내몰았지만, 그러나 시가 있어 오늘의 오봉옥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작품의 표제지 '셋!'은 그간의 역동의 삶이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를 숨죽이게 한 건 3·8선이 아니었다/ 검문하러 올라온 총 든 군인도/ 겹겹한 초병들의 날카로운 눈빛도 아니었다/ 기차길 건널목에 붉은 글씨로 써놓은 말쑤! / 그 말이 순간 우리를 열어놓게 만들었다...”

문학평론가 임우기는 “이번 시집은 시인의 존재론과 세계관에 있어서 이전보다 더욱 심화된 의식을 담고 있다”며 그림에도 “활달한 자유의 시학을 펼쳐보인다”고 평한다. 또한 이성혁 문학평론가는 최근 발간된 '시산맥' 특집에서 “최근 시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감성 짙은 서정시를 쓰는 시인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며 “체계바라의 길을 가고자 했던 그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어떠한 내면적 방향을 거쳐 삶의 깊은 곳에 다다르게 되었는지 보여준다”고 밝혔다.

현재 오 시인은 활발한 문예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계간 '문학의 오늘' 편집인을 맡아 많은 문인들, 독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시인은 시를 써야 시인입니다. 예전에는 거대 담론과 서사에 집착했다면 앞으로는 미시적이며 서정적인 작품도 창작할 예정입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읽기

아동 및 청소년이 문화예술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고 있다. 그러나 불구하고 그들의 니즈(needs)를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 과연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20세기 초 유럽의 사회운동가와 진보적 교육자들은 거리에 방치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놀이터운동을 전개하였다. 지금은 놀이터에 모래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놀이터에 모래가 등장한 것은 1907년 덴마크에서부터이다.



정혜영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장

이후 놀이터는 다양하게 변화되어왔고 현재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익숙한 놀이터의 모습은 1960년 이후부터 조성된 것이다.

아이들이 놀이터를 즐기는 모습을 관찰해 보면, 스스로 위험에 노출시키며 즐길 줄 안다. 아이들은 어른의 잔소리

안 나무집 짓기)사레나 일본 하네기 플레이 파크의 '모험놀이터' 사례처럼 아이들의 모험심을 자극하는 놀이터와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다. 목수축제에 추구하는 모험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모험놀이터'가 있다. 국내 대표적인 모험놀이터는 순천시의 '기적의 놀이터'다. 기적의 놀이터는 2호까지 만들어졌는데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자연적인 놀이기구와 모래

어린이 목수축제? 나는 목수다

와 감시 속에서도 놀이터 공간과 놀이기구를 어떻게 이용하며 즐겨야 하는지를 쉽게 이해한다. 이러한 이유로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이터의 모험을 즐길 줄 안다.

예전에는 이러한 호기심, 모험심들을 놀이터나 동네 빈 공터에서 해결했었지만, 요즘은 놀이터가 규격화되고 사교육 때문에 놀이문화가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놀이터에서 해결하지 못한 모험심과 인내심, 협동심까지 기르

놀이, 물놀이 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 도봉구 창동의 '뚝뚝뚝 놀이터'가 있다.

이러한 국내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한 광주문화재단의 '어린이 목수축제'는 상시적인 놀이터는 아니지만 2박3일 동안 공식적인 모험놀이터를 개장하고 어린이들이 맘껏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정형화되어 버린 동네의 놀이터가 아이들에게 더 많은 재미와 상상력을 발현해 낼 수 있는 아지트가 될 수 있도록 민관이 관심을 갖고 각 지역의 자연 특성과 인적 구성에 맞는 놀이 장소를 만들어갈 것을 기대한다.

최근 이러한 역사를 이어가듯,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나무집 짓기 프로젝트'(6-12세의 어린이 600여명 4일 등

모험놀이터에 놀이 활동가가 있듯이 목수축제에서는 대장목수, 담임목수, 보조목수 등으로 구분하여 예술가가 활동할 수 있다. 오는 30일-9월2일까지 2박3일 동안 70명의 아이들과 10명의 활동가와 15명의 스태프가 모험을 시작할 것이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연극 '광대의 꿈'

연극 '광대의 꿈' 무대 오른다

25일~9월 2일 광주 예린소극장

연극 '광대의 꿈'이 오는 25일부터 9월2일까지 광주시 동구 예린소극장 무대에 오른다.

'광대의 꿈'은 극을 쓰고 연출한 윤여송 씨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다. 1980년대 약동 같았던 삼청교육대에서의 기억을 잊기 위해 현실에 묻히는 것을 거부하고, 평생을 연극 무대에서 살아온 노배우의 삶의 궤적을 따라간다.

노배우의 연극 인생을 상징적으로 표현

하기 위해 의상·소품·무대장치 활용을 절제하고 단순로운 음악과 조명을 배경으로 삼았다. 역사적 사실을 조명할 때는 동영상상을 사용했다. 소극장에서 마지막 공연을 끝낸 노배우에게 잊고 지냈던 후배가 찾아온다.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토해내던 찰나 노배우는 20대의 정춘으로 돌아간다.

한중권, 이현기, 정이형, 임호원이 출연한다.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4시 30분-7시 30분 공연. 전석 2만원. 문의 062-223-2690.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진도군립민속예술단의 '진도아리랑' 공연 모습.

진도 토요일속여행 상설공연 25일 800회 특집

22년간 관람객 34만명 찾아

'진도 토요일속여행 상설 공연' (이하 토요일공연)이 오는 25일 800회를 맞는다. 지난 1997년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려온 이 공연은 진도의 전통 민속·민요, 무형문화재의 대표 무대로 자리잡았다. 그동안 34만 명의 관람객이 토요일공연을 찾았다.

유명 국악인을 무대에 올리고 다양한 기획 공연을 펼쳐온 토요일공연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진도아리랑의 우

수성을 알리고 있다. 진도군립민속예술단은 진도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800회 기념 특집공연을 갖는다. '신명나는 진도 가락'이라는 주제로 남도잡가, 진도북춤을 선보인다. '진도아리랑 따라 부르기', '강강술래 같이하기' 등 관람객과 출연진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인 국립국악원 수석단원 박성호씨와 국립민속국악원 왕기석 원장의 판소리 초창 공연도 펼쳐진다. 문의 061-540-342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회의 우수건축자재 선정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 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형디자인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 (062)511-0444 목포 (061)284-0485

전남 (061)683-0485 여수 (061)726-0482

H.P 010-6603-0405 광양 (061)795-0485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